

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지금 사형대기중인 40여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이들의 사형집행을 유보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이들을 종신형으로 감형하여 비록 비인간적이고도 흉폭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사회와 격리된 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희망한다.

1995년 11월 2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N SECTION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일련번호
	B5	20

김영삼대통령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청와대, 110-050

존경하는 대통령께,

대한민국 국정을 수행하시는 대통령의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에 근거하여 존경하는 대통령께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형제도는 이미 세계 90개 국가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인권협약( B협약 ) 제2선택의정서를 통하여 유엔은 세계 모든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형은 세계인권선언 제 3조에 규정된 생명권을 침해하는 잔인하고 모욕적인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국내외의 연구결과에 주목하면서 사형은 범죄예방의 효과를 지니고 있지도 못하며, 사형에 참여하는 사람을 야수화하는 경향을 가진 형벌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판에 의한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의 흉폭한 범죄와 이에 기인한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이유로 한국정부가 최근 실시한 15명에 대한 사형집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범죄와 단순한 법감정을 이유로 사형을 무리하고도 조급하게 시행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관계된 형벌이므로 부디 신중하게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이사국으로써 세계 모든 국가에서의 인권신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한국정부가 사형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국제인권협약 ( B협약)의 제2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희망합니다.

다시한번 존경하는 대통령의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95년 3월 일

이름 ( 직업 ) :  
 주소 :

서명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로 우송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김영삼 자료

16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 권 위 원 회

TEL : 470 서울시 영등포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8호  
전화 : 764-0203, 744-3717, FAX : 744-6189

## 청 원 서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분류	분류기호	자료번호
	B5	9

수 신 : 김영삼대통령 귀하  
 참 조 : 법무부 장관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형제도폐지추진위원회  
 제 목 : 사형제도폐지 건의와 건

1993. 12. 21

기쁜 성탄과 새해를 축하함으로 포용행복을 나누는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프리카는 사형제도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나 세계의 대부분 선진국들을 포함하여 약 80여 개국이 현재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형집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장부가 들어서면서 아직 사형집행이 없었다는 것은 천감다행스러운 일로서 하나님의 은혜이며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사형폐지는 김대통령의 개혁의지와 신앙의 결단에 답했다고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저희 의견을 건의하오니 참조하시고 이 나라 역대에 없었던 위대한 과업을 결단하여 사형폐지를 단행함으로써 역사와 길이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니다.

---- 다 음 ----

### 1.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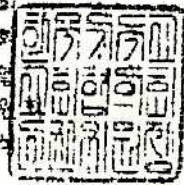
- 1) 사형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없도록 영원히 박탈하고 집행하는 행위 자체가 잔인하며 비인도적이기 때문입니다.
- 2) 사형은 범죄예방이나 연자책이 결코 될 수 없고 담당자 오판의 가능성의 점점 더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 3) 돈없고 소외된 약자들에게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4) 사형수가 퇴거하고 회복되어 가장 신한 보상으로 살아가도록 할때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 5) 통일헌법에 사형제도를 없애기 위함처럼 우리가 먼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94-1-6-78

2. 건의 내용

- 1) 최후엔 인기행영 사장이 복직되도록 협박을 하고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2) 사행제도가 복직되기 전까지라도 사행업영을 보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 3) 사행제도가 복직되기 전이라도 사행업영이 장전업영 형태로 되어 있는데, 최후엔의 제가없이도 국한 영업과 초영양 수 업도부 중추시기를 바랍니다.
- 4) 상한부 재회해 양이하고 보편사행수하 부가보안업으로 수감되어 있는 의 을한 부기수해 감영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5) 과거 사행수 영 으한한 사행법 철폐의 규명하고 명목보복을 하고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 권 위 원 회  
 위원장 김 재 영  
 사행제도복지기반과위원회  
 위원장 문 장 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창립 취지문

사형은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가장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고루한 형벌제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눈 앞에 내다 보면서 개혁과 국제화라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세계 모든 자유민주적 법치국가들은 인간의 생명과 가치를 최고로 인정하고 사형없는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된 시기임을 공감하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질서와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형제도를 계속유지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반국제화의 폐쇄적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채 국제사회에서 살인국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정치적 보복 또는 오만에 의해 많은 형제 자매가 처형된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단일 우리가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통일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동류상건의 참변은 어떨겠습니까? 우리의 사형제도 문제는 이렇듯 통일문제와도 직접 연관되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형제도 자체가 범죄를 억제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오히려 범죄 억제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날로 극악범죄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생명을 경시하고 증오까지 하여 서로 원수시하는 또다른 보복감정을 유발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극악한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공동사회의 한 일원이 된 입장에서 공동으로 죄책감을 느끼면서 죄의 값을 함께 나누려는 사랑의 정신에서 사형을 거부하려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누구도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으며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법자체가 악법이요 위헌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사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형제도폐지운동을 하는 것은 흉악범을 무조건 용서 하자는 것은 아니고, 고귀한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대신 자선책으로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도 말하는 종신형 또는 감형없는 무기형으로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측의 인권적 차원에서 보호와 보상의 운동을 전개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성 상실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겉손히 실천하며 초교파적으로 생명운동 차원에서 사형폐지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랑의 사회를 건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와 결단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물가짐으로 우리의 사형폐지위원회를 창설하고자 합니다.

1993. 12. 2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 권 위 원 회  
위원장 김 재 열  
사형제도폐지분과위원회  
위원장 문 장 식

## 사업계획서

- 1) 정부 국회 및 각정당에 사형폐지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활동
- 2) 사형폐지에 관한 공청회, 토론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 3) 사형폐지 서명운동 전개
- 4)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사형수에 대한 재심청구 및 각종 변호활동과 구명운동
- 5) 사형에 관한 자료조사 및 수집
- 6) 사형자료집 및 소식지 발간
- 7) 오판 사례조사 및 제반 정보수집 활동
- 8) 피해자측의 인권옹호 및 보호대책 추진
- 9)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에 대한 화해역할, ~~피해자측에 대한 위로 역할~~
- 10) 사형에 관한 사례, 비디오 등의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사형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 오게 함
- 11) 세계 각 나라 및 유관단체와 연대 활동



## <긴급성명>

# 김영삼 정부의 무모한 사형집행에 분노한다.

오늘 12월 30일 법무부는 오전 9시부터 전국의 교도소에서 정은희(만 27세)등 약 20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현 정부 들어 94년 10월 15명, 95년 11월 19명에 대한 사형집행에 이어 세 번째 자행된 것이다.

우리는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에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며, 오판의 가능성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그간의 국제인권단체들의 지적을 환기하고자 한다. 또한, 사형제도가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 명기된 생명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범죄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오늘의 이번 사형집행은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형과는 다른 범죄라고 우리는 단정한다. 즉, 현 정부의 임기말, 올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행된 이번 사형집행은 어떤 합리적인 논리도 찾을 수 없는 무모하기 그지없는 인명살상 행위라는 점이다. 국가기강을 파괴하고, 경제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만든 장본인인 현정권이 새 정권이 정부 인수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저지른 이번 사형집행은 어떤 변명으로도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우리는 법무부의 무모한 사형집행이 최근의 혼란스런 국가 위기를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되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러하다면 정치적인 목적에 인간의 생명을 이용하는 극악한 범죄일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그간 국제사회의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계속 거부하여 왔다.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형제도의 폐지에 동참하기는 커녕 사형 대기자들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국제적인 인권흐름에 대해 항상 역행하는 조치를 취해왔는 바, 우리는 새 정부가 현 정부의 이런 반인권적인 태도를 불식하고 인권의 신장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한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에 관한 것이다. 한번 자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사안보다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처리할 문제다.

더구나, 광주학살과 내란, 각종 국정비리에 관련된 전두환, 노태우 씨 등을 성탄절을 맞아 특사로 석방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형집행은 더욱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는 무모하기 이를 데없는 사형집행에 대해 법무부 당국자의 해명과 사과가 있기를 바라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저지른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사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사형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차기 정권 담당자들은 진지한 국민적 논의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한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n-Section**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Tel. 063) 426-2633 Fax. 053) 422-1956

Taegu Sunong P.O. Box 36, Taegu, 706-600, Rep. of Korea

706-600 대구 수성우체국 시서화 36호

## 생명권자의 두모한 사형집행에 경각하라

###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 -

오늘 법무부는 오전 9시부터 전국의 교도소에서 사형전고를 받고 대기중이던 사형수 약 10명을 사형집행하였다. 이번 사형집행은 이른바 문민정부가 94년 10월 6일 15명, 95년 11월 19명을 사형집행한 것에 이어 세번째 이루어진 사형집행이다. 많은 인권단체와 사람들의 아끼 억려차례에 걸쳐 사형의 상인함과 비인도성을 한국정부에 지적한바 있으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논의는 전개될 것과 사형집행을 유보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여러 국내외의 연구결과에 주목하면서, 사형이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형벌이며, 범죄예방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사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며, 오만의 가능성을 예방하지 못하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이용되는 측면이 많은 형벌이라고 생각한다.

97년 12월 현재통계에 의하면 사형은 세계의 절반이상인 98개국에서 이미 폐지되었으며, 이러한 폐지추세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사형폐지를 추구하는 UN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협약 (B협약)의 제 2인권의성서"를 비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와 사형의 만인권성에 근거하여 오늘 10명을 사형집행시킨 한국정부의 행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최근의 김영삼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시급, 또한 김대중 당선자의 신 정부가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심수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수감자에 대한 대사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한국사회의 분위기 또는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한국정부가 10명을 사형집행한 부모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국제엠네스티는 사형대기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법무부당국의 용색함에 대해 개탄하며, 시급이러도 사형대기자의 명단을 국내외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지금 사형대기중인 60여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이들의 사형집행을 유보하며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이들은 순신형으로 감형하여 비록 비인간적이고도 흉폭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사회와 격리된 채 자신의 살갓을 반성하고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희망한다.

광수화살과 내란음모, 각종 국성비리에 관련된 인사들은 정단질을 맞이하여 석방하면서, 10명의 사형수들을 집행하는 이유에 대해 법무당국은 국민에게 해명하기 바란다.

1997년 12월 30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N SECTION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부류기호	사유
	B5	40

독자보고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반대하여

오완호 (국제엠네스티 한국시부 사무국장)

지난 1995년 한해동안 41개 국가에서 2,931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되었으며, 79개 국가에서 모두 4,165명의 수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것은 알려진 수치이나 실제 통계는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인권협약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미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예멘 등 5개 국가에서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사형집행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미국에서는 6명의 청소년이 사형집행되었으며, 이 숫자는 5개국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사형제도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랜 전통에 속하는 관행중의 하나이다. 사형은 법률적 형벌의 범위 들 벗어나 철학, 윤리학, 사회학, 인류학, 종교 등의 각 분야에서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내중적 찬반논쟁의 대상이었다. 고대의 한부라비 법전, 구약성서, 고대로마의 십이표 법 등으로부터 역사적 기원을 두고 있는 사형제도는, 근대형벌학이 성립된 이후에도 루소의 사회 계약설, 칸트와 헤겔의 응보정론, 민의 공리주의 등 사형존지에 대한 이론적 토대위에서 진행되어 왔다.

사형존치론의 일반적 주장은 사형제도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억제 그리고 응보적 명심성 충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와의 관계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여 사형이 생명권을 부정하는 형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사회적 범의식이 사형을 일하고 있다는 점을 사형존치의 근거로 들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형존치론은 1764년 벡카리아(Cesare Beccaria)가 "범죄와 형벌"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적절성, 불필요성, 부당성을 지적한 이후 금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형존치론은 그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사형존지에 대한 기존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알려주는 연구결과들,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국제인권규범의 제정 그리고 사형폐지국에서의 경험은 많은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1976년 이래로 매년 평균 2개 국가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었으며 89년 이후 21개 국가에서 사형제도는 사라졌다. 현재 세계의 절반이상인 100개 국가가 명석 또는 실세에 있어 사형제도를 폐지 하였으며 94개 국가에서 사형은 존치되고 있다. 1988년부터 유엔을 중심으로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사형제도가 종신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실패하였다. 초반간 사형제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가설을 지지해 줄 어떤 긍정적인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 사형제도의 부적절성에 관한 많은 연구서들 중 1988년 유엔의 보고서는 "모든 증거를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가 사형제도를 존치시킨다 하더라도 범죄율의 감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제도를 반대한다. 국제엠네스티는 산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고 시체를 소각한 시준과의 경우는 물론, 민주화를 짓밟고 정권을 찬탈하고, 광주에서 투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범죄범의자인 전두환씨의 경우에도 사형의 선고와 집행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사형제도는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형벌이기 때문이다. 또

한 아무리 흉폭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명을 뺏앗을 권리가 국가에게는 부여되어 있지 않  
나라고 생각한다. 사형은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다. 유엔은 "시민적 및 정치  
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선택의정서"를 통해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게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  
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전두환씨의 범죄행위에 대한 선고공판을 늦일 앞두고 그의 범죄행위  
가 심판되고 역사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도,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반대  
하는 이유는 전두환씨에게도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이 있기 때문이다.

80년대 전두환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사형수들을 무기형으로 감형하라는  
각종 청원운동을 벌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옥된 모든 양심수들 석방하고 고문과 가혹행위  
를 즉각 종식하라는 각종 인권활동을 전개해 온 사람으로서, 세월의 무상함과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며 오늘 그에게 선고될지도 모르는 사형을 반대한다.



인권 자료	
유기종	사료
B5	6

## 사형제도는폐지해야하나?존속시켜야하나?

번호:1/56 토론자:MULLER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3 14:21 길이:33줄

인권 어쩌구 그러지만 역시.....

법이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란 기본 바탕이 깔려있습니다..

죽을죄를 졌음 죽어야죠..

물론 억울하게 싸라지는 사형수도 있겠지만....

아기를 납치해다 죽이는 그런자들은 이미 살가치가 없죠...

그리고 이것을 알아둬야 해요..

우리나라에서 사형의 형을 받은자는 많은데,

실지로 사형당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사형을 언도 받아도 제명대로 살다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사형을 할 경우는

예전의 예로...

가정파괴범들이 한참 날떨 ml.

본보기로 그전 가정파괴범으로 형 언도 받은 자들을...

본보기로 사형시켰죠..

유괴사 썸 ㄷ인범들도 본보기조로 몇 사형 썰겼고요...

본보기...협박이죠,니들 그렇게 하면 죽일꺼..이런...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람들만 죽이죠,일단..후~

예구 죽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군..

하긴 내가 눈앞에 교수대가 보인다면 어쩔찌..

사형제도는 있어야 할겁니다.

이러는 자들 생겨요.

까짓 죽지도 않을텐데/. 한번 지지르자..

판나란 몰라두 울나라는 그런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들이 많은데 하물며

않죽는데야..히

그리고.....중신정보단 아싸리 죽고말죠,하긴 살고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정도 아빠가...

NightHart Muller...

번호:2/56 토론자:MOWGIL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3 16:04 길이:3줄 자기는 여럿을 죽

이고 자기는 살려는 그런 나쁜놈은 당연히 죽여야죠~ 그럼요~~

당연히.....

번호:3/56 토론자:GAVIAL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3 18:29 길이:3줄 마자요 죽일 사람

은 죽이고 죽을 사람은 죽어야 해여.....

법의 엄한 면을 보여야 우리같은 서민이 살기가 편해지지..

고로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합니다.

번호:4/56 토론자:Y0071025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3 19:17 길이:13줄

그들을 직접 대해보진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인인 나는 그들을 자주 대했던 분들과 만날수가 있었다.

살인, 유괴, 성추행, 강도등.....

이들에게 있어서의 잘못은 그 한순간을 보통의 사람들과같이 자제하지 못한것에 있다.

이들의 과거를 거슬러 내려가보면 이들만의 잘못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진정으로 충분한 뉘우침이 있는 그들을 본다면 우린 용서해야할 것이다.

자신과 주위의 잘못을 용서하듯.....

번호:5/56 토론자:DYGLASS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3 22:59 길이:8줄

사형은 없애구 살인하면 40년형 등등 강간하면 5x형

x=1

그럼,,,

\.

번호:6/56 토론자:JENJIN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4 00:47 길이:32줄 안녕 하십니

까..??

별 입니다.

사형제도라... 참... 난감한... 문제군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린뒤.. 나중에.. 그 누명이 벗겨진 경우....

사형제도가 없었더라면.. 최소한.. 목숨만은.. 구제 할 수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죽는 순간 만큼은.. 참회를 한다 더군요..

이러한 예가 있었답니다..

현 사형제도는 교수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수를 교수대에

메달고... 일정 시간이 지난뒤.. 검시관이.. 진단한 결과.. 아직 죽지 않았더랍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 까요..??

나중에 내려진 결론은.. 다시... 형을 집행하기로 결정이 났고... 그 사형수는..

죽었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번호:8/56 토론자:MILDWAVE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4 02:42 길이:8줄 사형을 당하게

된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또 다른 인간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한 생명을 [죽여라]라고 결정하는 것은..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것 같네요..

생명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죽이는 아이러니..

사형제도가 있기때문에 범죄가 그나마 줄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번호:9/56 토론자:ANTIUS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4 02:46 길이:25줄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모함이나 위증, 경찰들의 고문... 물론 그렇게 해서 사형당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판사중에 오판을 하고 사형을 시켰다가 끝내 자책감에 시달려 그만두고 여행이나 하는 그런 통속적인 드라마도 있듯이 그런 예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국가적 낭비 일 뿐입니다. 판사 한명 만드는데 드는 돈이 조종사 만드는데 것보다 적다해도 그 시간이나 비용은 결코 무시할 것이 아니므로... 또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은 유령이 되서 복수를 할 까요? 죽은자는 말이 없을 뿐....



아울러 정권에 의해 의도적으로 자행되는 살인행위 또한 없어야만 합니다. 조봉암씨같은 분, 단지 경쟁자라는 이유 때문에 누명을 쓰고 살인당했습니다. 김대중씨, 단지 민주화를 추구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형언도도 받았고, 그렇게 될 뻔도 했습니다.

정치범에 대한 살인(실제 내란을 일으켰거나 독재자가 아닌 대통령, 등을 살해한 경우등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더욱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철저히 파악하고 살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간첩이나 혁명가로 몰려 죽을 수 있는 후진성이 진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범에 대한 살인->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권력의 살인행위.

일반범에 대한 살인 -> 명확한 증거가 없이 행해지면 역시 살인.

이민수 씀.

번호:10/56 토론자:MULLER 수신자:Y0071025 토론일시:93/11/24 14:38 길이:28줄

맞는 말씀이에요...

하긴 순간의 실수이기도 하죠...

그러나 순간의 실수에 의한 죄는 역시 법에서도 알아서 봐줍니다..

이건 어쩔런지..

아주 오랫동안 병행을 계획했고

자신의 이익이나 생각에 따라 그 범행을 아주 이성적으로 저질렀을 ml..

아우 사형제도 없어 그자식 살아봐요.. 열받지...

미국은요...

연방이기 때문에

켄터키치킨주엔 사형제도 이꼬..

캘리포니아 오렌지주엔 사형제도가 없고 그러는데요...

(예임..호~)

켄터키치킨주에서 죽을 껴졌는데 사형않당할것 같으면.

알아서 캘리포니아 오렌지주로 가서 재판받게 해서 죽인대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어설뜨거나 우발적인 살인. 성추행... 기타 죄들..

이것들로 인해 사형시키진 않죠..

계획된 범해..

아무튼 인간으로서 도저히 그럴수 없는데...그런 죄 진 사람들만.

목매다라버리는거죠.

하긴 전기의자도 이찌만..

아무튼...귀하의 글에서 귀하의 감정을 알수 있어요.

역시.세상은 귀하같은 좋으신분들도 있군요..

"드림..

정도 아빠가.

번호:11/56 토론자:MULLER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4 14:50 길이:54줄

법치주의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사형제도가 있어.. 과연 범죄가 줄었는가는 누구도 선 뜻 답할수 없는 부분이고요..

권력에 의한 억울한 사형...

그리고 판결의 오류로 인한 역시 억울한 사형...

인간의 내리는 결정이기에 시대에 따라 많은 착오가 있었죠..

저 역시 그 예를 알고..또 보아왔고요..

차 ☹...아주 근사한 예가 떠올랐습니다.

근래에 아주 사회적으로 쇼킹한 사건이 있었죠.. 왜

에구 까먹었는데. 하여간..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죽인사건 왜 이짜나요.

아직도 수사는 오리무중이고

계획돈 범행에 의해

아주 처참하게 사람을 죽인 사건

한달두 앓았는데.. 히

그거 범인 잡히면 과연 살려놔야 해요?

그사람들은 분명 계획하\에 침입해서.

망치로 무자비 하게 때려죽이고 그랬는데..

그걸 살려줘야 해요?

설마 이말에 토를 다시진 않겠죠..

현대는 다수에 의해 이끌어 나갑니다.

차 ㉠... 아주 근사한 예가 떠올랐습니다.

근래에 아주 사회적으로 쇼킹한 사건이 있었죠.. 왜

에구 까먹었는데. 하여간..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죽인사건 왜 이짜나요.

아직도 수사는 오리무중이고

계획돈 범행에 의해

아주 처참하게 사람을 죽인 사건

한달두 앓았는데.. 히

그거 범인 잡히면 과연 살려놔야 해요?

그사람들은 분명 계획하\에 침입해서.

망치로 무자비 하게 때려죽이고 그랬는데..

그걸 살려줘야 해요?

설마 이말에 토를 다시진 않겠죠..

현대는 다수에 의해 이끌어 나갑니다.

(물론 간혹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억울한 죽음도 있죠. 물론.,

그러나 대부분 죽을죄 저 죽는경우입니다..

사형제도의 폐지로...

죽을놈이 살아 있는 것 전 그폴 못봐요.. 후

아무튼....가정파괴범이라든지..

아기를 납치해다 죽여놓고 돈 내놔 하는 사람들..

과연 사형제도의 폐지 때문에 살려놔야 하는지..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에게 묻고 싶군요...

밑에글에도 제가 말했듯이.

사형당했다고 다죽는것도 아닙니다..

형집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곤 쉽사리 하지 않아요..

그럼..

정도 아빠가..

(에구 이번 전화세 많이 나왔다고 정도엄마한테 디지게 마께따..

음.나 디지게 맞아서 죽으면 정도 엄마 사형시켜야 되나?)

번호:12/56 토론자:NEGATIVE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4 22:14 길이:17줄 보복적인 형벌



을 내리는쪽...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끝까지 회개의 여지를 남겨두자는 쪽...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복과 동정. 과연 어느쪽이 옳은걸까요?

후자는 인간적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이지는 못하고.

전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다는 핸디캡이...

원리주의자가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폐지는 무리일지요?

좀 더 고통이 적은 집행방법을 고려해 보는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킬로톤을 수입한다던지... 잔인하긴 하지만.

인류의 법과 함께 생겨난 사형제도... 필요악 아닐까요? 서구에서는 폐지 추세라지만, 꼭 그게 옳다는건 아니죠.

오히려 일부 국가에서는 다시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으니...

별 내용없는 글이었습시다.

<<< 타고난 수능맨, 휴우가 >>>

번호:13/56 토론자:CLEMENCY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5 22:49 길이:4줄 결과론적으로 말고 과정으로도 사형제도를 살피 볼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우선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선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된 나라들이죠~ 이것은 이들의 범죄가 사회의 영향때문이라는 답이 나오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번호:14/56 토론자:LEE46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6 11:11 길이:25줄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의 생명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사형의 목적은 흉악범죄 억제가 가장 큰 이유이며 판사나 검사는 사회와 그 범법자를 영원히 격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법정에서..)

그럼 우리는 사형을 언도 받은 흉악범과 그기에 같이 오판되어 희생 될 수 밖에 없는 소수의 선량한 사람의 목숨(오판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으므로) 을 뺏가로 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있는 비슷한 범죄로 부터 우리를 보호 하고자 하는것 이다. 이런 거래는 생명도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인식은 도리어 생명경시에 의한 살인의 증가 요인이 될 것이며,범죄 외적인 부분에서의 인명 손상을 부채질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많은 교통사고 산업재해의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인명경시 사상에서 오는 것이다 남과 나의 목숨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과속을 할 것이며 음주 운전을 할 것인가.사형제도 에서 얻고자 하는 범죄로 부터 우리 생명의 보호가 도리어 범죄 외적으로부터 보다는 위협을 자초하는것이다.

흉악범으로 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손쉽고 편한 사형수의 목숨 박탈 보다는 보다 많은 노력과 돈을 치안에 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이는 생명존중의 정신 과도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과연 흉악 P과 소수의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의견이 분분 할 것이나 전 없다고 봅니다.

번호:15/56 토론자:PARK5743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6 21:46 길이:1줄 사형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번호:16/56 토론자:KLASSIKE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7 00:49 길이:73줄

사형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이에는 이, 눈에눈이다?

여러분은 고대에 죄지은 자를 광장의 한곳에 몰아넣고 모든 마을 사람 들이 모여 그를

들로 쳐죽이는 형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런 것에 가담하였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응당한 벌을 내렸던 신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그 죽어버린 범인을 죽인 제 2의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까?

찬성하는 분들은 당연히 죽어야 할 짓을 했으니 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무지에 가득하고 동물적이며, 인간의 추악한 살인본능을 드러내는 발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어느 신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명확히 아는 것은 제2의 살인, 바로 사형을 주장하는 분들이 그 죽어야만 한다는 죄인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2. 한 사람을 죽이면 다른 범인에게 경고라는 홍보의 효과가 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계획하고 고의로 죽이는 자들이 과연 어느날 사형이 선고되고, 어느날 그자가 죽었다는 보도를 듣고 '아니,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하고 개심을 할까요?

화가 치밀어 순간적으로 사람의 가슴을 식도로 찌른 사람이 그 찰나의 순간에 '아! 내가 이 칼로 사람을 찌르면, 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찌르려다 말까요?

사람의 생명을 '너도 이런 짓하면 이렇게 목졸여 죽는다!' 라는 경고성 발언을 강조하기 위해 이용한다고 말한 그 사람의 인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군요.

3. 종신형을 사느니 사형을 당하겠다?

이런 말을 한분이 검은 보자기를 머리에 쓰고, 수갑에 손이 뒤로 묶인 채, 목에 굵은 동아줄은 꼭 조이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똥 오줌이 나 올도록 한 5분간만 발악하는 자신의 꼴을 본다면 다시는 그따위 소리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은 인간이 뭔지도 모르는 자의 개소리가 아니 던가요?

4. 무고한 자의 죽음, 그의 생명은 무엇으로 보상합니까?

사형선고를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끝까지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과 신만이 알고 있을 그 진실이 왜곡되었고, 단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길이 없었기에 죽어야만 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한 무고한 생명을 살리수 없는 법이라면 그 법은 이미 존재가치를 잃은 것입니다. 그의 잃어버린 생명은 한 판사, 그리고 그밖의 모든 관련된 인간들의 순간적인 또는 고의적인 판단의 착오에 의해서 발생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사무착오라고 그를 위로할까요? 그의 가족에게 돈 몇푼 집 어주고 조용히 끝낼까요?

■ 정부의 사형집행은 합법화된 공권력에 의한 살인행위이다.

살인자의 칼은 살인도구이고, 형집행장의 교수대는 정의 집행입니까? 그가 사람을 죽였다고 판사가 그를 죽여도 된다는 권리는 대체 무엇으로부터 오는 법입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까? 그렇다면 그 범인을 죽인 그 검사와 판사는 왜 누구인가의 손에 죽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살인을 행하면서 정의라 하고, 살인을 행하면서 그것이 당신들이 정한 법이라 주장할수 있으며,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까?

사법부의 허가된 살인면허는 한손에 칼을 들고 한손에 저울을 들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공평한 척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모든 살인과 제3자의 보복은 보고 싶지 않아 눈을 가린 모습과 전혀 다를바가 없습니다.

법은 우리 생활의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운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오히려 그 법이 인간을 죽이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번호:18/56 토론자:E0079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7 14:39 길이:26줄

사형제도는 인류가 집단적 사회생활을 해오기 시작하면서 부터 지금까지 존재해온 죄에대한 징벌이었습니다.

그만큼 사형은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여를 한셈이죠. 근래에 와서 인권문제와 종교상의 박애 정신을 들고 나와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데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입니다. 먼저 인권 문제를 보면 사형을 선고 받을 만큼 죄를 지었다면 이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런 동물(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을 인권적 문제로 보호해줄 가치가 있습니까? 또 한평생을 감옥에서 산것 보다 일찍 죽여주는 것이 오히려 인간적일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보면 이젠 과거 자신들이 자행했던 일을 이미 잊어버렸는것 같습니다.

마녀라고 몰아부쳐서 죄없는 여자를 참혹하게 불에 태워죽이고 신, 구교도들간에 서로 잡아서 죽이고 이랬던것이 박애 정신이었습니까?

사형은 단지 사회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인간 아닌 인간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시키는 것입니다.

번호:19/56 토론자:SIMPLEX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7 19:47 길이:12줄

사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죄도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를 벗어난다면  
그 죄인은 인간으로써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번호:20/56 토론자:CLEMENCY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7 21:45 길이:3줄 사형수가 사형을 받기전에는 너무나 선하고 보통사람보다 더 착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로 사형수들이 착해진걸까요?

아니면 죽음이라는 한계점에서 살기위한 방편일까요?

번호:21/56 토론자:JEON4470 수신자:CLEMENCY 토론일시:93/11/27 23:15 길이:7줄 Jeon4470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 죄수의 행동은 마지막 세상에 향한 미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든 삶에 대한 포기도 포함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죄수가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얻는다면 이 죄수는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다시 그 전의 쓸모 없는 사람으로 돌아 갈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죄수가 사형수가 된 이유가 파단하기에 구제불능이라는 전제를 둘때말이지요.

번호:22/56 토론자:SIXTEEN 수신자:ALL 토론일시:93/11/27 23:32 길이:32줄

사형!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저자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게 죽음입니다.

집행후에 밝혀진 진실! 그런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에게 생명을 보상할 수 있습니까?

돈? 권력? 인간이 가진 그 무엇도 이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한명의 죄없는 사형수와 아홉명의 죽을 죄인.

열명의 죽음... 아무리 흉악한 죄인으로 사형당했대도

죄없는 한명은 죽어서는 안될사람입니다.

그럼 그피를 뒤집어쓸 자는 누구입니까?

국민주권의 시대입니다. 사형언도의 권력을 제공한 우리모두의 책임입니다.









왜냐면

사형수의 유한적인(시한적 삶) 생에 대한 각성으로  
그는 엄청나게 변화되어 도저히 사형수가 될 만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믿겨지질 않는다.

그들은 사형수라는 낙인이 찍힌 그 순간 부터 아니 그 이전 부터 범죄자로서의 아니라 한  
이간으로 돌아가 버린다.

따라서 굳이 또 하나의 죽임을 수행 하면서까지  
이 사회가 정화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사형제도 보다는

사회의 범죄양산의 구조적인 모순을 개선하고  
구체적으로 소년범으로 부터(비행청소년들 부터..)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범죄에 대한 저항력이  
커질 수 있도록 하는데에 더 노력해야 한다.

사형수는 사형수가 된 그 순간 부터 이미 사형수가 아니다.

여기까지 읽어준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번호:29/56 토론자:BERETTA 수신자:ALL 토론일시:93/12/02 01:03 길이:11줄

이 세상에는 살아 있을 만한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단지 인권이니 합법적 살인이니

이런 말로 살려두고 감방에서 먹여주고 재워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낭비입니다.

그런 인간들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시민들을

보십시오. 과연 그런 흉악범들을 살려둘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죄를 진 인간들은 당연히 죽어 마땅합니다.

■■■ Hand Gun Man...BERETTA 이 상백 ■■■

번호:30/56 토론자:DEATH 수신자:ALL 토론일시:93/12/03 20:33 길이:9줄 제 아이디어가 DEATH  
입니다.

살벌하죠?

그래서 말인데요.

전 사형제도를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약간 제한을 해서

반성하면 살리주고

반성안하면 죽이면

되잖아죠

번호:31/56 토론자:MOWGIL 수신자:ALL 토론일시:93/12/04 00:14 길이:1줄 제목 그대  
로.....

번호:32/56 토론자:NEGATIVE 수신자:ALL 토론일시:93/12/04 13:39 길이:17줄 처음엔 강경론  
이 대두되다가 요즘은 폐지론의 일방적 공세이군요.

처음부터 제대로 토론된적은 없네요. 충분히 좋은 주제임에도.

그저 사람 머리수나 세우려고 성의없이 쓰지는 맙시다.

자기 주장만 있고 내용이 없는건 머리가 비었다는 것이니까.

저는 어느쪽에도 완전한 찬성이 아니라 뭐라 말할수 없네요.

하지만, 오판과 인간의 존엄성 얘기만 나오면 강경론은 숨을 죽이니...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천부인권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저지른 자는  
분명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 세계에서 그 죄란게 사형일 뿐이지...  
꼭 또 다른 살인이라고 불리어야 할 일일까요?  
그래도 반론당하면 뭐라 말할 자신이 없네요.  
이래저래 인권이란게 사람 골치아프게 합니다.

<<< 악의 근원, 지옥의 바늘도둑 >>>

번호: 33/56 토론자:KLASSIKE 수신자:MOWGIL 토론일시:93/12/04 14:27 길이:37줄

죽일 놈은 빨리 죽이자? 대체 죽일 놈 살일 놈은 누가 구분하여 일렬로 세우고 차례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이런 무지한 글을 쓰신 분의 심성이나 이성은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설령 농담이라 할지라도 조금은 지나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사람을 죽였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러했던 사람이라고 판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엄연히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그에게 칼을 휘두를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의 그의 피해자이며, 조금 넓힌다면 그의 가족 뿐입니다.

솔직히 한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갈때 그 사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살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감각 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며, 나 자신이 공권력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하나의 믿음 때문에, 합법적인 공인된 살인행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법은 편리를 위해서, 사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의하여 우리가 지배받기 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가 편리한 방법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법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는 어떤 의미에서건 법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운용의 틀에서 영원히 벗어난 변칙적인 운용방식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법을 흔히 얘기할때, 열사람의 죄인을 처벌하기 보다는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좁은 의미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사형의 집행인이 단독적으로 구성된 재판부와 임의로 판단될 수 있는 법해석의 방법, 판례에 의한 관행적인 살인의식 등의 존재는 결코 그것에 의한 폐단을 포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형설수설 하긴 했지만, 우리가 그 살인범의 생명을 주지 않은한 어느 누구도 그가 사람을 죽인 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다시 살해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않된다고 믿습니다.

번호: 34/56 토론자:NEGATIVE 수신자:ALL 토론일시:93/12/04 20:25 길이:8줄 법은 최대한 그를 치유할 방도를 찾습니다.

모순되지만, 사형제도 아래서도 법은 인권을 최대한 수호하려 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을 반드시 사람의 생명에만 한정지어야 됩니까? 그런 고귀한 인권을 말살한 가해자... 법의 수호를 받을지언정.

그 죄값은 해야하지 않을까요?

단순한 보복법적 차원이 아닌, 그 존엄성에서...

<<< 악의 근원, 지옥의 바늘도둑 >>>

번호: 35/56 토론자:LEE46 수신자:ALL 토론일시:93/12/04 22:37 길이:24줄 처음 부터 제대로 값 토론이 없다. 좋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글세요 님도 여기에 글을 쓸대는 제대로 값 글을 쓸 자신이 있었을거고 쓰고 나서 등록을 하실때 취소를 안한것 보면

그글이 제대로 꺾다는 결론이엇겠네요.

그후 2탄 까지 쓰시며 첫번째 글에 대 하여 글을 못 ㉠으니  
최송하단 말이 없으니 아직 까지 제대로 꺾글이라 생각하심이  
분명한것 같는데.. 그럼 제대로 꺾글이 없는 곳에 제대로 꺾  
글은 최고로 잘쓴 글임에 분명하다는 결론이 나네요.

좀 우습군요 켈 잘쓴 글이라... 건방진 것도 같고 아님 뭘모르 시던지...

먼저 글을 쓴적이 있어 님의 글을 보고 기분이 나쁜  
이재석이가 .....

번호:36/56 토론자:CLEMENCY 수신자:ALL 토론일시:93/12/05 00:45 길이:5줄 이렇게 사형제  
도에 대해 좋게 토론을 해 주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논리적인 글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글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그럴수도 있지만 사람목숨이 왔다갔다하는 문제인 만큼 감정보다는 이성으  
로 이 문제를 논해주세요

그런 더욱 좋은 토론이 될꺼라고 믿습니다..

번호:37/56 토론자:HWIRYMI 수신자:ALL 토론일시:93/12/05 13:54 길이:13줄 국가제도에 의  
한 최고의 복수가 사형입니다.

결국은 국가가 복수를 대신 해주는거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한낱 제도가 사람을 죽일수 없는것보다도 위에 존재합니다.

사형제도 보다 강한 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른바 신체형을 부활한다던지 (강간을 한자는 궁형을 도둑질을 한자는 손을 자르고 사기  
를 친자는 혀를 자른다는 정도의 ....) 또는 죽음 보다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자 연스레 스  
스로 목숨을 버리게(?) 만든다던지 .....

후지가 더 잔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제 입장은 방법론입니다.

직접 죽이는것은 안된다는 얘기죠.

.....

번호:38/56 토론자:GGIMPPA 수신자:ALL 토론일시:93/12/05 21:55 길이:8줄 이유는 뻔하지  
않나.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정죄를 할 수 있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을 빼앗으며.

특히나 요즘 사형수들은 사회가낳은 부쌍한 사람들이다.

번호:39/56 토론자:NEGATIVE 수신자:ALL 토론일시:93/12/05 23:19 길이:10줄 웃기는 강경론  
자분들...아예 안 보이는군요.

밑의 분이 말씀하긴데 대해서 뭐라 할말이 없네요.

저같은 무신론자에게는 재미있는 논리이지만.

그보다는 좀 더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논했으면 합니다.

뭐라 강하게 받아치진 못하겠군요.

너무도 소박한 생각이시라...

<<< 열혈 사커보이 >>>

번호:40/56 토론자:LEE0814 수신자:ALL 토론일시:93/12/09 15:53 길이:4줄 사형 제도라...  
글썩나쁜것 같네요.

그렇게 나쁜죄를 지었으면 차라리 살려 두어서 참회 하게 만드는것이 어떨까요? 참회 하게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깐요.

사형을 받는 사람은 주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피해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살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과연 자신의 살 권리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외칠 자격이 있을까요? 이런 이기주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죽인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 그 순간부터 그 범죄자는 자신의 기본권도 포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물론 사회에 나가서 다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형감이라도 다시 한 번 고려할 가치는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 국가 예산을 좀먹는 사회악적인 존재인 범죄자라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사회로 다시 나가 얼마든지 새 삶을 살 수 있는 중범죄자는 사형감이라도 다시 한 번 고려하고, 그야말로 사회악적인 존재에게만 사형을 구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이 구형된 다음에도 상당한 기간을 지켜보면서 행동등을 관찰하여 반성의 기미가 보이고 사회에 나가면 착실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되면 사형을 취소하는 그런 식으로 사형수의 숫자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THE WANDERER WHOSE NAME IS KNIGHT ★

번호:45/56 토론자:UCOBEN 수신자:ALL 토론일시:93/12/17 18:14 길이:5줄 사형은 마땅히 있어야 한다.....

반드시.....

왜냐면 자기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살려는 그런 파렴치한 놈,,, 성폭행한놈..... 당연히 죽어야지.....

번호:46/56 토론자:CITUS 수신자:ALL 토론일시:93/12/20 15:47 길이:3줄 당연히 존속 되어야 함.....

반드시...~~

나쁜 놈들(살인자)는 죽어야죠.....

번호:47/56 토론자:KEYHOTE 수신자:ALL 토론일시:93/12/21 21:57 길이:3줄 인간이면 자기가 한 일은 책임을 저야줘.....

물론 가벼운 죄이면 어쩔수 없지만 사람을 죽인다면 이런 심한 죄를 죽여 마땅해요...

번호:48/56 토론자:CLEMENCY 수신자:ALL 토론일시:93/12/24 23:23 길이:4줄 안녕하십니까???방장 입니다...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94년도 한해엔 우리 천리안 가족 모두에게 좋은일만 있었으면 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번호:49/56 토론자:L9916 수신자:PYK 토론일시:93/12/27 02:05 길이:9줄 사형제도가 또 하나의 살인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살인같은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도를 존속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남의 가장 귀중한 생명을 빼앗는 일은 어떤 벌로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 말씀을 하셨는데 글썽요..

좀 모자라는것 같군요.

(너무 잔인한 말 인가요?)

번호:50/56 토론자:DIAPASON 수신자:L9916 토론일시:93/12/27 23:46 길이:30줄

사형제도같은 사회가 저지르는 특수한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는 별달리 처벌할 방도가 없겠

군요. 남의 가장 귀중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길로도 정당화될 수 없겠지요. 이 사회를 해체해서 각 개인이 완전히 고립된 상황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제 고민은 해결이 될 것 같군요.

대체 누가 살인할 권리를 지닌단 말입니까. 그 어느 사형 옹호론자들도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의 감정적인 판단으로 남 죽인 놈들은 죽일 놈들이라는 식으로 몰아 세워서 이 사회가 살인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해 두어서 자신의 살해본능을 충족시킵니다. 살해본능이란 말이 좀 심했나요?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군요. 여러 사형제도 옹호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니 말입니다. 안죽이고는 못배기겠 다는군요.

아래아래 어느 글에서 누군가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사형수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무시하시려 하더군요. 살인자가 인간이라는 질문에 이런 질문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누가 어떤 인간이 더이상 인간이 아 니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살인한 것은 사형감이고 어떤 상황은 사형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까? 그 명확한 기준을 만들 수 있나요? 어떤 건 유죄고 어떤건 무죄라는 시뮬거리를 떠 나서 이젠 생명이 걸린 기준입니다."

이제껏 올라온 글 중 절반 정도가 사형제도를 옹호하시는 분들의 글이고 나머지 절반정도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분들의 글이었습니 다만 그 둘 사이에 어떠한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안타까와 글을 써 봅니다.

1993. 12. 27.

김순익

번호:51/56 토론자:L9916 수신자:DIAPASON 토론일시:93/12/28 23:18 길이:9줄 사형을 마구 집행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정말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입니다.

사람을 죽였어도 어쩔 수밖에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 윤리적 행위예의 분개로 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등등이 있겠지요.

사람을 죽일 권리에 대해 쓰셨는데

사람을 죽였다는 것 자체로 인권을 보장 받을 권리를 포기한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글쎄요. 사형제의 완전 폐지는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번호:52/56 토론자:C1022 수신자:ALL 토론일시:93/12/31 21:48 길이:10줄

이미 인간이기를 거부한 인간(?)은

인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죠.

c1022.

번호:53/56 토론자:DIAPASON 수신자:L9916 토론일시:93/12/31 23:49 길이:24줄 >사형을 마구 집행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정말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입니다.

~~~~~  
제 글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 말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 이해하실텐데요.

>사람을 죽였어도 어쩔 수밖에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 윤리적 행위예의 분개로 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등등이 있겠지요.

>사람을 죽일 권리에 대해 쓰셨는데

>사람을 죽였다는 것 자체로 인권을 보장 받을 권리를 포기한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그건 감정적인 대응이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헌법 어느 구절에서 가능합니까? 저도 법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이 구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군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사람을 사랑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형제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글쎄요. 사형제의 완전 폐지는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번호:54/56 토론자:DIAPASON 수신자:C1022 토론일시:93/12/31 23:49 길이:23줄 >이미 인간이기를 거부한 인간(?)은

>인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죠.

재밌는 생각이시군요. 이미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자신은 인간이기를 거부했다? 후후.. 이런 살인도 가능하겠죠? "일도 안하고 배불리 먹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인을 한 사람은 피해자를 인간 아닌 것으로 생각 하는 겁니까?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럿을 살해했다면 분명 여러분의 기준으로 사형감이겠지요. 이 가해자가 인간이기를 거부했습니까? 대답 듣고 싶군요.

=====

여러 폐지론자들이 쓴 글을 읽어보지도 않고 개인적인 생각을 쓴 글이 분명합니다.

아래의 여러 글에선 "영원한 격리"의 권리부터 시작해서 넘겨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한 반박이 이미 올라와 있는데, 이런 글을 또 올리시다니... 앞으로 어떤 토론실에 참여하실때는 토론실의 역사를 좀 살펴 보시는 것이 토론하는 이의 예의가 아닌 가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이 기본적인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해버리는 분들이 많더군요. 여러 토론실이 제자리 걸음인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구요.

이상입니다.